3대 지방금융지주 ESG 성적 'A+'… 착한 경영 결실

BNK, 2년연속 지배구조 우수기업
DGB·JB금융, ESG 우수기업 선정
친환경·지역상생형 상품 출시 등

(왼쪽부터)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각사

3대 지방금융지주 모두 올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면서, 수 년째 이어온 그룹 차원 ESG 개선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상장기업의 ESG 평가 및 등급'에서 BNK·DGB·JB금융지주가 나란히 통합등급 'A+'를 받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난 2011년부터 ESG평가를 통해 개별등급인 '환경경영'과 '사회책임경영', '지배구조' 종합등급인 'ESG 통합' 등급 등 4개의 등급을 부여한다. 올해 110개 금융사 중 통합등급 'A+'를 받은 금융사는 지방금융지주3개와KB금융, 신한금융지주 등 5곳에 불과하다. 특히 DGB금융지주과 JB금융지주는 'ESG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BNK금융지주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선정되면서 착한경영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BNK금융은 지난 2017년 김지완 회장 취임 이후 지배구조 선진화를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안정성, 독립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면서 ▲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3연임 제한 제도 ▲그룹 경영진 성과평가 제도 개선 ▲지주 감사담당 임원 선임 등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에는 ESG경영 비전과 전략방향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지역상생형 금융상품을 출시했으며, ESG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글로벌 표준기구 가입 및 이사회 중심의 ESG 거버넌스 구축도 병행하고 있다.

DGB금융 역시 김태오 회장 취임 이후 추진해온 지배구조 확립 정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최근 마무리를 지은 대구은행장 선임 과정에서도 금융권 최초로 CEO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에 공을 들여왔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부패방지경영 시스템(ISO 37001) 인증,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유엔 PRB(책임은행원칙) 가입 등을 통해 강화 노력을 지속했다.

JB금융 또한 사회책임경영(A), 지배구조(A+), 환경(A)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통합등급 A+를 부여받았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을 받은 '지배구조' 부문에서 배당수준을 개선하면서 소액주주를 우대하는 '차등배당제도', 사외이사 평가 및 출석률 개선을 통해 이사회의 수준을 끌어 올리려고 노력한 점이 빛을 발한 셈이다.

한 지방금융지주 관계자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ESG 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평가뿐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저축銀 감소세인데 지점신고제?… "시대역행"

지점 신고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저축은행 점포수, 매년 감소세 기록
비대면 트렌드 확산에 실효성 의문

저축은행이 신고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저축은행 업계가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또한 점포를 줄이고 있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이번 개정안 자체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신고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입법예고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지점을 설치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향후에는 당국의 허락 없이 신고만으로도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도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지점을 통폐합하거나 철수하는 수순을 밟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은 의문이다. 시중은행이 폐쇄되고 있어 해당 공백을 저축은행으로 채우겠다는 복안인데 저축은행 또한 점포를 늘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시중은행은 올 상반기에만 100개가 넘는 점포를 정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 줄어든 점포의 2배를 넘어서는 규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 전반적으로 비대면 트렌드가 확산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점포로 유입되는 고객의 발길이 사실상 끊기다시피 되면서 점포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은 저축은행도 마찬가지다. 최근 1~2년 사이 저축은행 또한 비대면 영업 환경을 구축, 다양한 투자를 통해 디지털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즉, 최소한의 점포로 고효율의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공을 들이고 있어 굳이 점포를 낼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점포수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302곳으로 2015년 328개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꾸준히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제는 대형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중앙회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도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원활하다"며 "모바일을 통한 고객 유입, 수신액 등이 80% 정도에 이르는 점을 감안,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해도 저축은행 지점이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실손의료보험가입 가입전 확인하세요"

금감원 Q&A

Q.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기위해 고민 중입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이나, 실손의료보험을 고르는 방법, 보장항목 등이 궁금합니다.

A. 실손의료보험은 내가 낸 병원비 등을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가입 전 본인이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에 특약의 형태로 포함돼 있거나 회사 단체상해보험 등에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보험찾아줌'을 통해 내가 이미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의 '공시실'을 이용해 각 보험회사 별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험회사 별로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차이가 있었으나 2009년에 모두 동일한 상품구조로 표준화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별로 사업비구조와 손해율이 다르고 자기부담금이 10% 또는 20%인 상품이 있습니다.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교를 통해 본인의 건강과 재정상태에 따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내가 낸 병원비의 실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한 상품 별로 통상 10~20% 정도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보장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방접종비, 일반 건강검진비, 간병비, 미용이나 성형 등 외모개선목적 병원비, 임신이나 출산 의료비, 치과 비급여항목 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검진일지라도 이상 소견에 다른 추가 검사비용, 내시경 검사 중 발견된 대장·위 용종제거술 비용 등 치료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영석 기자

IBK기업은행, 창업기업 육성 업무협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맞손

IBK기업은행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혁신 창업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내년 하반기 대덕특구 내 완공 예정인 사이언스센터에 'IBK창공'을 개소할 예정이다. 마포, 구로, 부산에 이은 네 번째 창공이다.

두 기관은 'IBK 창공' 기업에게 투자·융자 등의 금융지원과 사무공간, 투자유치를 위한 데모데이, 국내외 판로 개척, 기술 부문 멘토링, 기술사업화 교육 등을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2일 "'IBK창공' 운영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로 기술형 혁신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BK창공은 혁신 창업기업에게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창업육성 프로그램이다. 2017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43개 육성 기업을 대상으로 투·융자 등 금융 서비스 1630억원, 멘토링·컨설팅, IR 등 비금융 서비스 3087회를 지원했다.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오른쪽)과 양성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나유리 기자 yul115@

NH농협은행

업계 첫 품질경쟁력우수기업

NH농협은행은 고객행복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는 제46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품질경쟁력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는 1000여명의 상담사가 일평균 6만명의 고객과 상담하는 최접점이다.

2008년 11월 금융권 최초로 'KS S 1006' 인증을 받은 후 12년 동안 유지 및 표준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AI)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학습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 BM(Business Method) 특허 5건 출원 및 3건 등록도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의 자랑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10년만에 개정

핵심표준안 제시·이용자중심 편성

금융감독원은 2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10년 만에 새롭게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화된 금융·교육 환경을 반영하고, 핵심표준안 제시와 이용자중심 편성 등을 통해 금융교육 기준서로서의 실효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 금융', '금융소비자 보호'에 개정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성취기준을 신설해 보강했다.

또 기존 성취기준의 타당성·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델파이) 등을 통해 대영역 5, 중영역 12, 성취기준 86개를 확정했다. 각 성취기준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중복내용을 통폐합하고 배치순서 등을 조정했으며, 학생 발달단계나 생활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금융역량이 증진될 수 있게 성취기준 내용을 구성했다.

금융교육에 충분한 수업시간 할애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는 최소한의 금융교육 내용을 담은 핵심 성취기준 25개를 선별했다. 금감원은 개정 표준안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 학교, 금융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파일을 게시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